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보험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Korea's Exportation before and after 2008 Financial Crisis

최문성(Mun-Seong Choi)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강의초빙교수

## 목 차

- |                   |          |
|-------------------|----------|
| I. 서 론            | VI. 결 론  |
| II. 한국 수출보험제도의 현황 | 참고문헌     |
| IV. 모형 및 분석방법     | Abstract |
| V. 분석결과           |          |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출상대국 112국의 2005년과 2009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를 살펴보면, 한국의 수출을 종속 변수로 하고, 한국의 수출 상대국의 실질 GDP,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과의 거리, 수출보험인수실적,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 FTA 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수출보험인수실적과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는 한국의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한국의 수출에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반면, 수출상대국의 경제규모의 중요성은 감소되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보험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 수출보험,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중력모형, 수출촉진

## I. 서론

1960년대 초 정부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추진과 함께 그 기본골격이 형성된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이러한 수출지원제도의 하나로 수출보험이 있다.

수출보험은 대금결제상의 각종 위험을 담보해 주는 비영리 정책보험으로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실, 또는 수출금융 제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수출금융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는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으로 1969년부터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는데, 운영초기에는 그 활용률이 지극히 저조하였으나, 1992년 전담 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출범 이후 수출보험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한편, WTO 출범 이후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수출보험은 보조금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수출보험은 일종의 수출지원 보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세계 교역량의 급격한 감소 원인으로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수출의 무역금융에 대한 의존도 증가 및 무역금융 이용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수출증진에 있어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수출보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5년과 2009년도 자료를 이용하는 한편, 양자 간 무역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해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본 중력모형을 확장하여 한국의 수출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수출상대국의 실질GDP,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과의 거리, 수출보험인수실적, 국가신용등급, FTA체결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분석대상, 분석기간, 분석방법에 따라 그 결과에 있어 상이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 김희국,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단기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친 영향 비교”,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2호, 2012, p. 30.

김희국(1998)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다변량 자기회기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에 의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수출보험과 수출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보험의 수출촉진효과는 5%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희(1999)는 수출수요함수와 수출가격함수를 설정한 후 1971년부터 1998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보험과 수출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에 있어 단위근 검정을 통해 자료의 안정성을 체크하고, 자기상관 문제를 고려한 코크란-오르컷(Cochran-Orcutt) 추정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주·이은재(2000)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설립 이전 시기인 1977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간과 설립이후인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시기를 구분하여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제곱법(ordinary least-squares method: OLS)을 통해 수출보험인수액과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수출보험 인수실적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은재(2002)는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분기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제곱법을 통해 단기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단기수출보험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영·양지환·전성희(2001)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각 국별 수출액과 수출보험인수실적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제곱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수출보험이 수출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수출보험인수실적이 1% 증가할 경우 수출은 0.5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정석(2008)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29개의 한국 수출상대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수출보험 지원시책은 한국의 수출이 수출상대국의 시장에서 독점력이 높을수록 효과적이고, 독점력이 낮을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재두(2011)는 수출수요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ewit(1996)은 수출보험을 일종의 수출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수출보험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일본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수출거래시의 수출보험 가입률이 5~12% 정도였고, 이들 국가의 수출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매우 작기 때문이기에 수출보험이 국제 무역 발전을 저해하기 보다는 수출보험이 비상위험

과 신용위험을 분산하는 본래의 기능 때문에 오히려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였다.

Abraham and Dewit(2000)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벨기에 정부가 수출보험을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무역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를 위해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수출장려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Mah(2003)는 영국정부에 의해 제공된 수출보험 보조가 영국의 수출을 촉진 시켰는지에 대하여 수출상대가격, 수출보험보조금을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ah(2006)는 일본의 수출보험과 수출간에 관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수출상대가격, 수출보험보조율 및 실업률을 독립변수로 하고 수출의존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수출공급함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의 수출보험이 일본 생산자들의 이윤은 증가시킬지라도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 및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과 자료의 출처에 대해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한국 수출보험제도의 현황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 중 수입자의 계약파기, 거래대상자의 파산, 지급불능, 대금지급지연 및 거절, 수출불능 등의 신용위험, 수입국 정부의 전쟁이나 환거래 제한, 송금위험 등에 의한 비상위험, 무역거래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서 비롯되는 상업위험 등 통상 보험제도에서 담보될 수 없는 위험들로부터 수출업자, 생산자,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비영리적인 정책보험이다.<sup>2)</sup>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출보험이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거래와 시장개척을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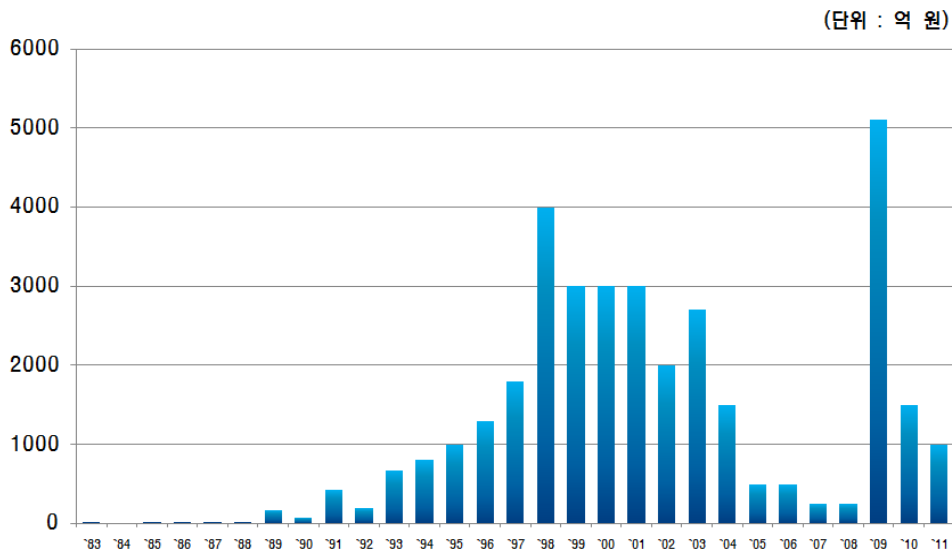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는 1968년 수출보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69년부터 수출보험업자가

2) 이인주·이은재, “수출간접지원제도인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수출보험학회지』, 통권 제1호, 2000, p. 240.

개시되었으나, 운영초기에는 제도 자체의 경직성, 대행체제로 인한 경영상의 불합리성, 보험 인수실적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2년 7월 전담 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출범시켜 대행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출보험기금 확충 및 적극적인 보험 운영 등을 통해 수출보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이후 수출보험인수실적 및 이용률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 수출보험은 최초에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중장기 연불수출보험, 위탁판매보험 등 5개 종목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무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신설·보완·폐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13개 보험종류와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다.<sup>3)</sup>

한편, 비영리적 정책보험인 수출보험체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기금은 주로 정부출연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림 1> 수출보험 출연기금 변화추이

3)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종목을 살펴보면, 결제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성 종목으로는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이 있고, 2년 초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성 종목으로는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등이 있다.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로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 등이 있다.

정부출연기금은 수출보험제도 도입 원년인 1969년 3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 수출보험공사 설립 이후 수출보험 업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997년에 이르러서는 1,800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내기업의 신용담보를 위한 수출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여 1999년 4,000억을 기록하였고, 이후 꾸준히 3,000억 원을 유지하던 정부출연금은 200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25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엔 1천억원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는 무역거래 기반조성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수출보험 30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오늘날 국제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방식이 무신용장 방식 거래 비중의 증가로 과거에 비해 수출자의 대금회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향후 수출보험을 지속 확대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출연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수출보험금의 인수실적도 수출보험제도 원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1969년 이래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수출보험 인수실적은 누계 1,272조 원에 달하며, 인수실적의 발전 추이는 <그림 2>와 같다.

한국의 수출보험인수실적은 196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수출보험의 이용 정도가 매우 저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대다수 수출거래의 결제형태가 대금회수가 보장된 신용장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수출대상국도 신용위험, 비상위험 등에서 안전한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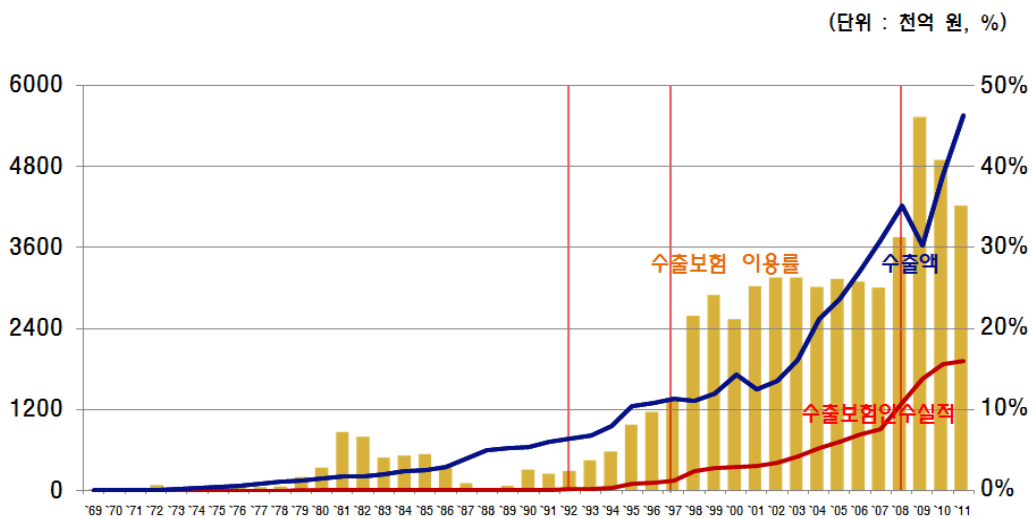
1977년 국내 건설기업들의 중동지역에 대한 해외건설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건설공사보험 및 수출보증보험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1979년 2,591억 원을 기록하였고, 이와 같은 추세는 2차 석유파동(1979-1980) 및 1984년과 1985년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의 인수실적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1986년까지 지속되어 1986년 인수금액이 1조원 수준에 이르렀으나, 1986년에 나타난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1989년 인수금액은 3천억 원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수실적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3저 호황 속 고도성장을 보인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수입개방압력 강화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노사분규 확산, 임금상승 등으로 인한 상품의 가격경쟁력 악화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불안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sup>4)</sup>

또한 1992년 수출보험공사 출범에 따른 수출보험의 활성화, 1994년 WTO출범에 따른 정부

4) 이은재, “단기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수출보험학회지』, 제3권 제1호, 2002, p. 92-93.

의 무역정책범위 축소, 1997년 IMF에서 비롯된 국내경제의 유동성 위기와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됨으로써 수출보험인수실적의 증가세는 2011년 까지 지속되고 있다.



주: 수출보험이용률 = (수출보험 인수실적/수출액)\*100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1994), 한국수출보험공사 (2001),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2> 연도별 수출액, 수출보험 인수실적, 수출보험 이용률 변화추이

## IV. 모형 및 분석방법

### 1. 모형

본 연구에서는 양자 간 무역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중력모형을 통해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Tinbergen(1962)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중력모형은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뉴턴의 법칙을 국제무역이론에 응용한 모형으로 양국의 무역은 양국의 시장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기본 가정 아래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공통언어, 국경의 인접, 경제개방도, 지역무역협

정 등을 변수로 포함 하고 있다.<sup>5)</sup>

본 연구에서는 기본중력모형을 확장하여 수출보험인수실적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한국의 수출상대국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수출 상대국의 실질 GDP를 이용하고, 운송비를 나타내는 변수로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 사이의 거리를 사용하였으며, 수출보험의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수출보험인수액을 사용한다. 또한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신용기관에서 평가한 국가신용도를 더미변수로 활용하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 1은 아래의 식 (1)과 같다.

$$EX_i = \beta_0 + \beta_1 GDP_i + \beta_2 DIS_i + \beta_3 EXIN_i + \beta_4 CR_i + \epsilon_i \quad (1)$$

여기에서  $EX_i$ 는 한국에서  $i$ 국으로의 총수출,  $GDP_i$ 는  $i$ 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DIS_i$ 는 한국과  $i$ 국간의 거리를 나타내며,  $EXIN_i$ 는 한국의  $i$ 국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인수액을 나타낸다.  $CR_i$ 는 수출대상국의 국가신용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수출대상국의 국가신용도를 투자적격과 투자부적격으로 구분하여 투자적격일 경우는 1, 투자부적격일 경우 0으로 나타낸다.<sup>6)</sup> 한편, 본 연구에서는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계수는 탄력성을 나타낸다.

중력모형에 의하면 수출 상대국의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양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GDP계수인  $\beta_1$ 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거리를 나타내는 계수인  $\beta_2$ 는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보험인수액은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beta_3$ 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높을수록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beta_4$ 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식 (2)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한다.

$$\begin{aligned} EX_i = & \beta_0 + \beta_1 GDP_i + \beta_2 DIS_i + \beta_3 EXIN_i + \beta_4 CR_i + \\ & \delta_0 GLC + \delta_1 GDP_i \times GLC + \delta_2 DIS_i \times GLC + \\ & \delta_3 EXINS_i \times GLC + \delta_4 CR_i \times GLC + \epsilon_i \end{aligned} \quad (2)$$

5) 중력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이두원·김동희·박석원(2012), pp. 248-252 참조.

6)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투자적격과 투자부적격 구분은 <표 1>참조.



여기서  $GLC$ 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금융위기 이전은 0, 금융위기 이후는 1로 나타낸다.

만약 수출상대국의 실질GDP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delta_1$ 은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된다. 거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송비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delta_2$ 는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delta_3$ 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delta_4$ 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체결 이후 지역협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정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형 1에 FTA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모형 1에 FTA더미가 포함된 모형 2는 식 (3)과 같다.

$$EX_i = \beta_0 + \beta_1 GDP_i + \beta_2 DIS_i + \beta_3 EXIN_i + \beta_4 CR_i + \beta_5 FTA_i + \nu_i \quad (3)$$

여기에서  $FTA_i$ 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FTA의 발효로 양국간 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beta_5$ 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FTA가 포함된 모형 2의 각 독립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식 (4)의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EX_i = & \beta_0 + \beta_1 GDP_i + \beta_2 DIS_i + \beta_3 EXIN_i + \beta_4 CR_i + \beta_5 FTA_i + \\ & \delta_0 GLC + \delta_1 GDP_i \times GLC + \delta_2 DIS_i \times GLC + \\ & \delta_3 EXIN_i \times GLC + \delta_4 CR_i \times GLC + \delta_5 FTA_i \times GLC + \nu_i \end{aligned} \quad (4)$$

만약 FTA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증가할 경우  $\delta_5$ 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음(-)의 부호를 가지게 된다.

## 2. 데이터

본 연구는 수출보험과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수출 대상국 중 분석 가능한 112개국을 선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도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도의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각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의 수출액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추출하였고, 수출 상대국의 실질국내총생산은 UNCTAD자료를 이용하였다. 국가 간 거리는 프랑스 CEPII(국제정보연구센터)에서 인구 및 도시분포 등 가중치를 고려하여 중력모형 분석에 적합하게 계산된 자료를 이용하였고, 각 국가의 수출보험 인수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획득하였다. 한편, 각 국가의 신용도는 S&P, Moody's, Fitch 등과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국가신용도를 투자적격과 투자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분류 및 투자적격 여부는 <표 1>과 같다.

<표 1>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신용등급 분류

구분	무디스 (21등급)	S&P (21등급)	피치 (24등급)	비고
투자적격	Aaa	AAA	AAA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이 가장 높음
	Aa1, Aa2, Aa3	AA+, AA, AA-	AA+, AA, AA-	상위등급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
	A1, A2, A3	A+, A, A-	A+, A, A-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 있음
	Baa1, Baa2, Baa3	BBB+, BBB, BBB-	BBB+, BBB, BBB-	현재 원리금 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
투자부적격	Ba1, Ba2, Ba3	BB+, BB, BB-	BB+, BB, BB-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인 요소가 있음
	B1, B2, B3	B+, B, B-	B+, B, B-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이 낮음
	Caa1, Caa2, Caa3	CCC+, CCC, CCC-	CCC+, CCC, CCC-	지급 불능의 가능성이 있음
	Ca	CC	CC	지급 불능의 가능성이 큼
	C	D	C	
	-	-	DDD, DD, D	

자료: 기획재정부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112개국에 대한 2005년도와 2009년도의 국가신용등급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의 경우 112개국 중 68개국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국가였고, 나머지 54개국이 투자부적격 국가로 분류되었다. 한편 2009년의 경우 투자적격 국가는 62개국이었고, 투자부적격 국가는 60개국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05년에 비해 국가신용도가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된 국가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를 살펴보면, 2005년도의 경우 칠레가 유일하며, 2009년도의 경우 칠레를 포함하여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였다.

## 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112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도와 2009년도 각각에 대해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개년도 자료를 통합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나타내는 연도 더미를 사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각 변수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 1의 분석결과는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표 4> 분석결과(FTA더미 제외)

종속변수: 수출의 로그값	통합자료	2005년	2009년
상수	2.292*** (0.003)	2.292*** (0.003)	3.042*** (0.000)
수출상대국 실질GDP	0.533*** (0.000)	0.533*** (0.000)	0.287*** (0.003)
양국거리	-0.396** (0.022)	-0.396** (0.020)	-0.503*** (0.005)
수출보험인수액	0.443*** (0.000)	0.443*** (0.000)	0.592*** (0.000)
국가신용도	0.212*** (0.007)	0.212*** (0.006)	0.113 (0.236)
글로벌 금융위기	0.750 (0.489)		

종속변수: 수출의 로그값	통합자료	2005년	2009년
실질GDP×글로벌위기더미	-0.246** (0.035)		
국가간 거리×글로벌위기더미	-0.106 (0.662)		
수출보험인수액×글로벌위기더미	0.149* (0.078)		
국가신용도×글로벌위기더미	-0.099 (0.412)		
관측수	224	112	112
수정된 R-sq	0.849	0.859	0.840

주1. ( )의 값은 p-value.

주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먼저, 2005년도와 2009년도의 회귀모형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1에 대한 초우검점(Chow-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도와 2009년도의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7)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5년도의 경우 수출상대국의 실질GDP는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출상대국의 실질GDP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0.5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간 거리의 경우 그 거리가 멀수록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국간 거리가 1%증가할 경우 수출은 0.39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수출보험인수액이 1% 증가할 경우 수출은 0.443%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보험이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용등급의 경우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2009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의 경우 수출상대국의 실질

7) 본 연구에서 모형 1의 Chow test의 결합귀무가설은 식 (2)의 계수가  $\delta_0 = \delta_1 = \delta_2 = \delta_3 = \delta_4 = 0$  이고, 이러한

결합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은  $F = \frac{(SSE_R - SSE_U)/J}{SSE_U/(N-K)}$  이다. 여기서  $SSE_R$ 은 두 개년도의 자료를 통

합한 회귀모형의 오차제곱합을 나타내고,  $SSE_U$ 는 식 (2)의 회귀분석의 오차제곱합을 나타낸다.  $J$ 는 제약식의 수를 나타내고,  $N$ 의 관측값의 수,  $K$ 는 제한된 모형에서의 추정해야할 계수의 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검정통계량  $F$ 는 귀무가설이 맞을 경우  $F(5, 214)$  분포를 따른다. 한편, 검정결과 F-value의 값은 22.320(p-value 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위의 결합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GDP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0.28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간 거리의 경우 양국가간의 거리가 1% 증가할 경우 수출은 0.5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수출보험인수액의 경우 수출보험인수액이 1% 증가할 경우 수출은 0.592%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국가신용도의 경우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5년도의 실증분석과는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개년도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그 탄력성이 약 0.246% 감소하였다. 양국가간의 거리의 경우 2005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약 0.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거리가 수출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수출탄력성이 약 0.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FTA를 포함한 모형 2의 분석결과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표 5> 분석결과(FTA더미 포함)

종속변수: 수출의 로그값	통합자료	2005년	2009년
상수	2.355*** (0.003)	2.355*** (0.003)	2.839*** (0.000)
실질GDP	0.534*** (0.000)	0.534*** (0.000)	0.294*** (0.002)
국가간 거리	-0.411** (0.020)	-0.411** (0.018)	-0.453** (0.013)
수출보험인수액	0.441*** (0.000)	0.441*** (0.000)	0.584*** (0.000)
국가신용도	0.209*** (0.008)	0.209*** (0.007)	0.110 (0.248)
FTA	0.183 (0.655)	0.182 (0.649)	0.176 (0.191)
글로벌위기더미	0.484 (0.661)		
실질GDP×글로벌위기더미	-0.240** (0.040)		
국가간 거리×글로벌위기더미	-0.043 (0.863)		

종속변수: 수출의 로그값	통합자료	2005년	2009년
수출보험인수액×글로벌위기더미	0.143* (0.090)		
국가신용도×글로벌위기더미	-0.099 (0.413)		
FTA×글로벌위기더미	-0.007 (0.987)		
관측수	224	112	112
수정된 R-sq	0.849	0.858	0.841

주1. ( )의 값은 p-value.

주2.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005년도와 2009년도 회귀식에 대한 초우검점(Chow-test) 결과 2005년도와 2009년도의 회귀 모형은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2005년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는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출상대국의 실질GDP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0.5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간 거리의 경우 양국 간 거리가 1%증가할 경우 수출은 0.4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수출보험인수액이 1% 증가할 경우 수출은 0.441%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여, 수출보험이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용등급의 경우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FTA의 경우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2009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의 경우 수출상대국의 실질GDP가 1% 증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0.29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간 거리의 경우 양국가간의 거리가 1% 증가할 경우 수출은 0.4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수출보험인수액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수출보험인수액이 1% 증가할 경우 수출은 0.584% 증가하였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용등급의 경우 수출에 양

8) 모형2의 식 (4)에서 Chow test의 결합귀무가설은 식 (4)의 계수가  $\delta_0 = \delta_1 = \delta_2 = \delta_3 = \delta_4 = \delta_5 = 0$  이고, 이러한 결합귀무가설하에서 검정통계량은 귀무가설이 옳을 경우  $F(6, 212)$  분포를 따른다. 한편, 검정결과 F-value의 값은 2.8491(p-value 0.011)로 유의수준 5%에서 위의 결합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5년도 분석결과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FTA의 경우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그 탄력성이 약 0.240% 감소하였다. 양국 간 거리의 경우 2005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약 0.0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거리가 수출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약 0.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출상대국의 신용도와 FTA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2005년에 비해 2009년도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수출보험은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VI. 결 론

1960년대 후반 도입된 수출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출증진과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WTO의 보조금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요한 수출증진 수단 중 하나이며, 수출의 무역금융에 대한 의존도 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경제의 파고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에 있어 수출보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출보험이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효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력모형을 설정하여 한국의 수출상대국 112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과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대해 횡단면 분석을 실시한 후, 이들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로는 수출보험의 대리변수로 수출보험인수액을,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수출 상대국의 실질 GDP를 각각 이용하였고, 한국과 한국의 수출상대국과의 거리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한국의 수출상대국의 국가신용도에 따른 수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신용기관에서 평가한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과 부적격 2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FTA가 수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FTA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 1의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상대국의 실질GDP는 2005년과 2009년 모두 한국의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양국 간 거리는 2005년과 2009년 모두 수출에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5년의 경우 1%, 2009년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수출보험인수액은 2005년도와 2009년도 모두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신용등급의 경우 2005년과 2009년 모두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5년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으나, 2009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2005년과 2009년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양국 간 거리의 경우 2005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약 0.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거리가 수출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수출탄력성이 약 0.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모형 1에 FTA를 포함한 모형 2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는 2005년과 2009년 모두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양국 간 거리의 경우 두 개년도 모두 수출에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5년의 경우 1%에서 2009년의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수출보험인수액의 경우 두 개년도 모두 수출에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다. 신용등급의 경우 2005년과 2009년 모두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5년의 경우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였지만 2009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FTA의 경우 수출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개년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두 개년도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수출상대국의 실질GDP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양국 간 거리의 경우 2005년도에 비해 2009년도에 약 0.0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거리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음(-)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수출보험인수실적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9년도에 약 0.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보험의 영향력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상대국의 신용도와 FTA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2005년에 비해 2009년도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에서 수출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된 반면, 수출상대국의 경제규모의 중요성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출보험의 증대에 기인한 바 크다. 따라서 향후 세계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수출보험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침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2005년과 2009년 자료를 이용하여 수출보험과 수출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의 단기적인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두 변수간의 장기적인 관계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과 수출보험 간의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출과 수출보험 간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세영·이서영,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관세학회지」, 제5권 제3호, 2003, pp 77~97.
-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수출보험」, 통권94호, 1998, pp. 16~26.
- \_\_\_\_\_,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단기수출신용보험이 수출에 미친 영향 비교”,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2호, 2012, pp. 29~46.
- 박현희,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4권 제2호, 1999, pp. 241~255.
- 송정석, “한국수출의 독점정도에 따른 수출보험의 수출촉진 효과 분석”,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2호, 2008, pp. 259~277.

- 송재두, “한중 무역보험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비교: 2000년대 양국 수출보험의 역할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4호, 2011, pp. 1~19.
- 이두원 · 김동희 · 박석원, “중력모형을 이용한 2008년 금융위기 전후 한국의 교역결정요인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6권 제3호, 2012, pp.243~274.
- 이시영 · 양지환 · 전성희,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역할과 국가위험도”, 「무역학회지」, 제26권 제5호, 2001, pp. 17-40.
- 이은재, “단기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수출보험학회지」, 제3권 제1호, 2002, pp. 87~105.
- 이인주 · 이은재, “수출간접지원제도인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수출보험학회지」, 통권 제1호, 2000, pp. 235~288.
- 한국무역보험공사, 「세계국가편람」, 2010.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25년사」, 1994.
- \_\_\_\_\_, 「수출보험업무현황」, 2001.
- Abraham, F. and G. Dewit, “Export Promotion Via Official Export Insurance”, *Open Economies Review*, Vol. 11(1), 2000, pp. 5-26.
- Dewit, Gerda, “Export Insurance Subsidisation and Undistorted Trade Creation”, Discussion Papers in Economics, 9610, University of Glasgow, 1996.
- Korinek, Jane, Jean Le Cocguic, and Patricia Sourdin, *The Availability and Cost of Short-Term Trade Finance and its Impact on Trade*, OECD Trade Policy Working Papers No. 98, 2010.
- Mah, J., *The Export Insurance system and Export Supply of Britain*, University of Connecticut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2003.
- \_\_\_\_\_, “The Effect of Export Insurance Subsidy on Export Supply : The Experience of Jap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Vol. 17, 2006, pp. 646~652.
- Timbergen, J., *Shaping the World Economy*, The Twentieth Century Fund, 1962.

## ABSTRACT

##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Korea's Exportation before and after 2008 Financial Crisis

Mun-Seong, Choi\*

In this paper, we explore the effects of export insurance on the Korea's export by using the gravity model with the data of 112 countries that Korea exports on years of 2005 and 2009. For this model, we used the Korea export as a dependent variables and real GDP, distance between the two nations, export insurance, country credit rating of the Korea's counterpart countries and FTA were used as an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underwriting performance of the export insurance and the sovereign credit rating of the export counterpart countries have the positive impact on Korea's export. Also, the impact of the export insurance is more increasing to the Korea exportation but the importance of the economy size of the export counterpart countries decreased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Particularly, the influence to the export by the sovereign credit rating has diminished in that period and this seems to be due to the export insurance has increased.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xport insurance plays an important role to promote the Korea's exportation since 2008 global recession. Especially, if the recession continues, then there will be more crippling impact to the small-mid size companies rather than large size companies. Therefore, Korea government should do their best to continuously expand the export insurance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Korea exportation, especially to the small-mid size companies.

**Key Words** : Export Insurance, 2008 Global Crisis, Gravity Model, Export Promotion

---

\*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Dongguk University